

문학작품속에 나타난 노인소외 양상(樣相)에 관한 연구 -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박 현 식(호서대학교 노인복지학전공 교수) · 손 남 미(호서노인전문요양원)

I. 서론

1950대 이래 세계의 노인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5월 현재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각종 통계수치가 가리키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외형은 물론 생활습관이나 관습, 나아가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

노인소외는 이러한 변화 중에서 주목해야할 점으로 부상한지 오래이나 아직까지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사회복지적 접근을 시도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실이 시설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삶의 질이 아닌 생존이기 때문이다. 소외는 오히려 2차적인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개념이 보편적 욕구충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시설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아닌 일반 노인들의 경우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그 외의 정신적 및 정서적 부분이 더욱 중요할 경우가 많다. 노인소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또한 노인소외는 노인자살이나 가출 등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노인들도 정상적인 사회관계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노인소외는 충분한 연구대상이라 할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노령 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는 최근의 박완서의 소설들을 통해 여러 문제의 양상과 전개 방식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살피고 사회복지 모델과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얼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 냉철한 지적과 더불어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박완서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완서는 불혹의 나이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상당량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박완서가 1980년대에 이미 쉰을 넘긴 나이라는 점이다. 이는 작가의 나이 듦에 따른 소재나 주제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노인 문제에 맞춰져 간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박완서만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의 시선이 지나는 자리 위에서 생성되는 구조물에 해당하며, 작가의 시선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제도적인 변화의 토대 위에 박완서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소설에서 나타나는 노인문제의 서사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분석을 통하여 노인소외 현상을 어떻게 사회복지적 모델에 적용시킬 것인지 논의하고, 실천적 사회복지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한다.

가족이라는 핵심 공동체를 근거로 한 가족관계의 축들 관계 속에서 노인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치를 상실하고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함으로써 결국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내몰려 있다. 또한 급속하게 이루어진 근대화는 왜곡된 사회변화를 가져왔고, 가족관계 역시 구조적 변형을 불러일으켰다.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 상호간의 유대관계는 미약해지는데 경제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부터 연결고리가 단절된다. 이러한 격리는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이나 관계성을 더욱 약화시켜 친족유대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노인문제의 한 유형인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으로써 노인문제가 갖는 침울하고 어두운 소재와 주제들의 접근을 통해 노인문제를 고찰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소외의 개념

산업사회는 인간으로 하여금 분업과 전문화, 도시화와 세속화, 지리적 사회적 이동에 따른 전통적 사회구조의 와해를 경험하게 하였다. 물질적 편의를 창조하는 능력은 신장되었으나, 정신적 안락을 유지하는 능력은 오히려 위축된 처지에 놓인 인간은 물질문명의 가속적인 발달에 따라 ‘도구화’되고 ‘비인간화’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산업사회에서의 인간의 소외, 자아 상실, 불안, 아노미, 낙망, 비인간화, 무관심, 사회 해체, 고독, 원자화,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성, 고립감, 비판 주의 등과 같은 인간의 심리상태 혹은 사회현상을 포괄하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아마도 ‘소외’일 것이다. 현대사회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낱말이 고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개념으로서 ‘소외’가 이용(김성아, 2006)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렇듯 소외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우리 생활 전반에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심각한 소외현상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 ‘소외’라는 용어를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마르크스(Marx)는 ‘소외’를 “개인행위의 결과가 개인에게 낫선 것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소외는 자아정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개인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자아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아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의 행위는 스스로 원해서 한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행위는 그 행위가 초래한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다시 그를 억압하는 사회적 압력이 된다는 것이다. 프롬(Fromm)은 ‘소외’를 “스스로를 따돌림 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 양식”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이 속한 사회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자기 동일성(self-identity)이 이화(異化)되는 과정이나 현상”이라고도 했는데, 이것도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스스로 외부 세계와의 단절감과 거리감을 경험하는 상태이다. 파펜하임(Pappenheim)은 “인간이 사물의 고유한 가치가 아니라 그 교환 가치에만 중점을 두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도 고유한 가치를 포기하고 교환 가치가 되는 현상”을 ‘소외된 상태’라고 보았다. 즉, 물질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인간마저 상품적 가치로 평가받고, 물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과 기계의 지배를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카우프만(Kaufmann)은 ‘소외’를 ‘A가 B로부터 소외당한다’라는 관계의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때 A는 소외의 주체, B는 소외의 대상이라고 하였다. 소외의 주체 A는 개인이나 집단이며, 소외의 대상 B는 개인·집단·사회·자연·자기 자신·사물·행위 등에 해당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A가 B로부터 소외당한다’는 의미는 ‘A가 B로부터 소원한 관계에 있거나 소원한 느낌을 갖는 것’이다. 페트로비치(Petrovic)는 소외의 주체 가운데 인간만이 아니라 사회·사물·자연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소외된 사회’, ‘소외된 자연’이라는 개념도 성립될 수 있음을 말한다. 오버랜드(Overend)는 소외 개념의 외연(外延)을 ‘소외’의 역사적 용례와 관련하여, 소외란 개인들 간의 관계, 한 개인에 속하는 성질들 간의 관계, 개인과 그의 외적 환경과의 관계 및 개인과 그의 생산 활동의 관계로 분류하고 이 관계가 분리·소원·양도·상실·물화(物化)의 성격을 띠는 때 양자 간의 관계를 소외로 규정하였다. 시맨(Seeman)은 소외를 주체의 정신·심리 상태로 이해하여 인간이 무기력·무의미·사회적 고립·무규범·자기소원의 상태에 있을 경우 그는 소외된 인간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직접적으로 ‘소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짐멜(Zimmel)은 인간과 근대 문화와의 갈등을 다룬 저서에서 “현대 사회는 인간이 자기 자신일 수가 없고 인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운명적으로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김성아, 2006).

이상에서 소외의 개념을 규정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을 때, 소외나 소외 현상을 그 자체로서 해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소외 현상을 그 자체로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자기 동일성이 이화되는 과정·현상·상태·계기로 보아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는다. 자기 동일성이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격’(person)과 ‘자아’(self)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각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기를 자기 자신으로 확인하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자기의식·자기 확인으로 존재하는 인격은 실체적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식 또는 자기 인식의 관계를 의미한다. 건전한 인격 또는 통합된 자아가 근본적으로 자기의식의 관계라면 인격이나 자아의 구조 속에 이미 자기분리·자기극복·자기통합의 계기가 내속되어 있는 셈이다. 역동적인 자기 관계로서의 분리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기 동일성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상태를 소외 또는 자기 소외라 부른다. 존재와 존재에 대한 자기 인식이 주관/객관의 관계로 전락되거나, 존재와 인식의 괴리가 장기화 상승화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합이 불가능할 때, 인간은 ‘소외’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소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Hegel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헤겔의 영향을 받은 K.Marx는 헤겔의 소외논의의 추상수준을 더욱 낮추어 구체적인 노동과정에서의 소외현상에 집중했다. 마르크스는 소외를 사회비판적 입장에서 사회과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이론화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E.Fromm은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소외를 논의했고,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특징과 인간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철학적 사변의 영역에 머물던 소외의 개념을 역동적 심리학과 결합시켜 경험적 연구의 대상이 되게끔 하려고 시도했다. 소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Melvin Seeman에 의해 주도되었다. Seeman은 소외를 현대사회의 구조적 맥락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기대감과 이에

대한 보상간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현상으로 보고 그 양상을 여섯 가지로 나누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도광조, 1999).

첫째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외부의 힘이나 강력한 타자 또는 운명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력감이다.

둘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사회적인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무의미감이며, 셋째는 사회적 수용에 대한 낮은 기대감을 의미하는 사회적 고립감이다.

넷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못해 발생하는 무규범감이고,

다섯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애착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자기 소원감,

여섯째는 사람들이 가치롭다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치나 이상으로부터 고립되어 발생하는 문화적 유리감이다.

따라서 노인소외는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변화와 역할변화 그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가족적 기대감과 보상간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텍스트로서의 문학

문학이란 정서와 사상에 상상력을 더한 산물이다. 정서와 사상, 그리고 상상력은 사회적 산물이다. 문학과 사회를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회문화적 산물인 문학은 그 자체가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므로 문학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로 얽혀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웰렉과 워렌(Wellek & Warren)은 작가자신의 사회학, 작품자체의 사회적 내용과 관련된 사회적 기록물, 사회에 대한 문학의 영향력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문학과 사회의 상관성을 논의하여야 한다고 했다(김성희, 2008). 문학은 사회의 반영물이라는 ‘미메시스’이론과 문학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강조하는 문학 효용론은 일반적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네 가지 관점 중 두 가지 측면에 해당한다.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설은 그 발생적 토양 자체가 리얼리즘이다. 따라서 소설은 그 사회의 거울인 만큼, 독자로서 하여금 시대상과 풍속의 변천과정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루카치(G. Lukacs)에 따르면,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대립 형식이다. 소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인의 비판과 저항의 형식으로 주인공과 세계의 대립적 상황인 ‘구성적 대립’과 서사시적 형식을 가능하게 하는 ‘충족적 공동성’사이에서 존재하며, 실존의 등가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대 사회의 총체성을 근대에서 찾고자 하는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역사적 총체성의 체험으로서 소설 텍스트는 인간 운명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 역사적 규정들에 대하여, 당대를 움직이는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통찰해 봄으로써, 인간의 삶을 현실성과 가능성의 구도 속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는 소설을 고대 서사시와 마찬가지로 대(大)서사형식이라고 보았다. 루카치는 모든 위대한 소설은 “서사시에 접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과 그 필연적 좌절 속에 소설이 갖는 문학적 위대성의 원천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서사시와 소설이 갖는 공통성의 실천적 의의가 있는 것”(민병인, 2000)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리얼리즘은 주체와 객체의 통일을 방해하는 물신화가 심화

되어 삶의 '의미 내재성'이 소원해진 근대 자본주의 삶을 주체와 객체의 통일을 드러내주는 예술적 총체성의 구현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다시금 조화롭고 유기적인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다. 소설이 이렇게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을 루카치는 소설이 가진 휴머니즘적 본질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총체성을 견지하는 리얼리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삶의 현상과 본질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perspectiv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물론 이 시각이란 루카치에 의하면 본질과 현상의 총체화는 작가의 계몽적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얼리즘 작품에 의해 창출된 세계의 완결성이 야기하는 객관적 특성이다. 따라서 결국 한 작가의 위대성은 그 작가가 현실에 대한 체험의 깊이와 풍부함을 가지고 세계의 완결성을 서사화하는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루카치는 바로 이러한 서사화를 통하여 문학작품은 완결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완결성은 일상적 삶에서 쉽게 인식되지 않고, 체험하기도 어려운 현실의 삶을 집약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체험을 통하여 독자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술은 이처럼 고양된 정서를 통하여 삶과 사회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의 본질적 성격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그가 의도한 '큰 리얼리즘의 기획'이었다.

바흐젠(M. Bakhtin)은 소설은 사회 내의 다양한 발화 유형 및 이념적 태도를 편집하는 예술적 산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소설은 자체 내 독자적인 언어 질서보다는 외부 일상 담화에서의 언어 장르와 관련을 맺으며 형식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하위 장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문학 텍스트란 수용자인 독자와의 소통과정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상태로 놓여있는 까닭에, 독자는 화자에 대한 창작임과 동시에 담론의 주체가 되는 초월적 자아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다. 독자의 이러한 역할이 가능한 것은 소설 텍스트가 미메시스(mimesis:모방)의 차원을 넘어 세미오시스(semiosis:기호현상)의 차원으로 부상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곧 소설 텍스트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상태로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문학의 서사가 구축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들의 관계망 속에서 기존의 공식적 개념 체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진실을 탐구함으로써 작가 개인의 사적 체험이 사회적 보편과 만나고, 개인의 자아의식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담론을 독자는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기성담론에 의해 사물화된 주체의 모습과 사회의 공식담론이 놓치는 인간 소외의 체험은 사회의 편견과 대결하고 저항하는 소설이 갖는 의미론적 실천 행위이다. 소설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대립 형식이라는 루카치의 말은 그래서 유효하다(김성희, 2008).

이러한 소설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텍스트가 갖는 노인의 소외 내지는 사회복지적 접근에 대한 탐색은 현실을 재해석 하는 좋은 텍스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에서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재현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여러 차별적 장치들은 소외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실천적 사회복지의 토대로 자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학사회학적 접근 및 관련 연구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문학사회학이란 용어는 문학비평에서 흔히 나타나는 용어가 되었으며, 문학과 사회와의 어떤 형태의 관계를 상정하는 이론적 시도를 총괄하는 폭넓은 뜻을 가진 어휘가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서구의 문학 사회학 이론들이 활발하게 소개·수용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수용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산출되었다. 이에 비해 그 동안 사회학적

에서는 연구대상으로서 문학현상이 유의미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어온 현대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문학생산이 갖는 사회적 성격과 문학작품이 사회학적 분석대상으로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분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학 쪽에서도 문학사회학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체계적인 연구의 축적이 요청되고 있다.

문학은 그 자체의 내적 질서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가치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시대의 현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문학이나 예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다루든 간에 그것이 진실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면 근원적인 인간조건으로서의 공동체적 연관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비추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문학작품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라 해도 그 작품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와 작품이 형성된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조명해야 그 의미가 적절하게 이해될 수 있다.

사회학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문학은 흔히 사회학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 소재인 집단, 가족, 권력, 계급, 사회구조 등보다 대상으로서 우위성을 갖는다(백낙청, 1979). 왜냐하면 문학은 사회에 대하여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여과된 의식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며, 그 의식은 이미 사회학이론이나 개념화의 단순한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이 지향하는 실천의 장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공적인 문학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소망해야 할 것인가를 추상적·논리적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 생활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실감하도록 하여 준다. 문학은 계급이나 사회 집단이 갖는 이해관계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여주는 적극적인 반응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학사회학 연구자들은 문학적 사실을 사회학적 사실로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학적 사실이 사회학적 의미로 환원되어서는 아니 된다. 문학작품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 하면서도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문학사회학의 어려움이 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짧은 이력은 문학 텍스트와 사회복지실천 문제를 연구한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현대식 주요 복지제도의 시행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보험, 그리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보장 제도가 실시되자 제도의 눈높이에 맞추어 문학과 사회사업의 상호 텍스트성에 주목한 현장 실무자들과 학자들 중심으로 한국문학 작품 속의 등장하는 소외 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단편 소설 텍스트 속에서 노인에 대한 탐색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 단편적인 탐색만으로 그쳐 의미 있는 결과물은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그 중 몇몇 자료를 더듬어 보면, 세대간 관계의 양면성을 중심으로 야담문학, 설화, 시가, 역사기록(조선왕조실록), 삼국사기 등의 자료를 통해 본 조선시대 노인관에 대한 연구(김미옥, 2006)가 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단편소설에 나타난 노인상을 연구한 한국 노인상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김성희, 2008)도 있다.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문학을 생각하는 모임, 1996:5-313)을 연구한 자료가 약간 있을 뿐이다. 특히 한 작가의 작품 전체를 조망하여 노인 문제를 탐색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리얼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박완서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리얼리즘이란 자연이나 인생 등의 소재에 대하여, 그 실재를 있는 그대로 충실히 묘사하려고 하는 예술상의 한 주의이다. 이것은 19세기의 후반 낭만주의에 대립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낭만주의가 정서적·공상적·주관적인데 대하여 이지적·현실적·객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현실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모습과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강용모, 2003). 리얼리즘의 근본태도는 인간의 진실에 대해 객관적,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근대 시기의 인간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데 있다. 여기에서의 진실이란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상황과 개인 삶의 현재적 모습이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발현된 것이다. 리얼리즘은 어떠한 문학도 인간사회의 발전과정과 분리되어 사고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학에서 리얼리즘은 당 시대의 인간의 삶을 문학적으로 탐구한다. 리얼리즘이 추구하는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사진처럼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실한 삶을 형상화하는 문학이며 시대상황 및 역사의식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 리얼리즘의 문학적 구현은 현실의 반영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 문학에서 리얼리즘은 일제 강점기 시기인 1920년대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리얼리즘은 비판적 리얼리즘과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두 계열이 있으며 초기에는 비판적 리얼리즘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1920년대에는 정치성-당파성을 강하게 띠고 문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나타났다. 즉,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야한다고 보고 문학의 현실 참여를 강조하였다(허영준, 2008). 본고에서는 리얼리즘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 냉철한 지적과 더불어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박완서 소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완서는 불혹의 나이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상당량의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해야 할 점은 박완서가 1980년대에 이미 쉰을 넘긴 나이라는 점이다. 이는 작가의 나이 늙음에 따른 소재나 주제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노인 문제에 맞춰져 간다는 점이다. 이는 비단 박완서만의 변화는 아닐 것이다. 어차피 소설이라는 것은 작가의 시선이 지나가는 자리 위에서 생성되는 구조물에 해당하며, 작가의 시선은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박완서 문학의 비판의식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지적과 더불어 삶을 사랑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녹아있어 삶에 관한 긍정적인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박완서는 그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가족이라는 핵심 공동체를 근거로 하여 가족간의 밀접하고 끈끈한 유대관계를 사회적 단위 집단으로서의 관계적 측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통한 현실 사회문제 및 삶의 문제를 이중적 시선으로 날카롭게 다루고 있다. 이는 협의적으로 가족구성원인 가족들 개인의 내면적 갈등 양상을 작품에 투영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가족 공동체의 사랑회복을 그려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그는 다양한 노인의 모습들을 사소한 일상적 사건에서부터 노년기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폭넓은 시각적 의식과 이해로써 작품에 접근하고 있다. 문화의 중심, 제도의 중심, 사회구조의 중심에서 제외된 노년의 갈등과 감정들의 단면을 자세히 그려내는 것은 물론이고 필연적인 노

화와 질병, 죽음에 당면한 과제들 속에서 다양한 초점의 노인의식과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사실주의에 입각한 노인의 세계를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는 말년에 치매 증상을 앓았던 홀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모신 작가의 독특한 체험적 소산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노인의 모습은 작가 자신의 시·친어머니로서의 할머니 유형으로 노인문제의 모티프가 되어 소설에서 자주 인물화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작가의 개인적 이력과 관련된 문학적 대상이 자기 주변적, 현실 체험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칠십 세를 넘긴 작가 자신의 노년 삶의 경험과 실존 증거로써 노년작가의 다양한 목소리가 문학에 기여하는 바를 재인식시키는 작가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리얼리즘 이론의 도움을 받아 박완서의 소설 중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하강 이미지로 나타난 노인소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노년은 퇴보나 붕괴 등의 부정적인 특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년에 삶의 완성, 존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상승 이미지로 나타났다.

노화로 인한 심신 기능에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변화가 노인의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이 글은 심신의 노화와 산업화 사회에서 변화된 노인의 위상으로 인한 노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한편 만년 및 노년에 이르러 성숙에 이르는 발전적 향상의 측면 등 여러 복합적인 노년의 특성을 참작하면서 노인소외의 소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제의 나열’로서 하강 이미지이자 환멸의 구조를 보여 주는 리얼리즘 기법의 노인소외 소설들과 함께 여기에 나타난 노년의 목소리를 규명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일조를 해 보려는 것이다.

우선 주인공들이 노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짐으로써 하강 이미지를 낳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첫째, 가족이라는 핵심 공동체를 근거로 한 가족관계의 축들이 작품 안에서 형성돼 있다. 그 가족관계 속에서 노인은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치를 상실함으로써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하고 결국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내몰려 있다. 둘째,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 상호간의 유대관계는 미약해지는데 경제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부터 연결고리가 단절된다. 이러한 격리는 가족 구성원간의 친밀감이나 관계성을 더욱 약화시켜 친족유대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노인문제의 한 유형인 소외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사회적 인식으로서 노인문제가 갖는 침울하고 어두운 소재와 주제들의 접근을 통해 노인문제를 고찰하려 한다.

분석을 통하여 ‘늙어 감’의 문제가 문학 속에서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재현되고 의식화 되는가를 검토한 후, 삶을 완성해 가는 노년의 모습이 상승의 이미지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표>박완서 작품

시점과 공간	관계와 대상	작 품
가족관계를 통해 본 노년의 위치	· 부부관계 · 고부관계 · 구부관계 · 독거노인	· 포말의 집 · 황혼 · 천변풍경 · 저물녘의 황혼
산업사회와 노인소외	·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지위 상실 · 경제활동 상실 · 경제주권 상실	· 저문날의 삽화 5 · 저문날의 삽화 4 · 이별의 김포공항 · 황혼
사회적상황에서의 소외	· 노인과 병 · 노인과 성	· 환각의 나비 · 집보기는 그렇게 끝났다 · 마른 꽃 · 오동의 숨은 소리여
사회복지적 관점	· 관계의 개선과 긍정의 양상 · 보편적 인간애로의 확대 · 정체성 회복의 갈망	· 너무도 쓸쓸한 당신 ·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 천변풍경 · 환각의 나비 ·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 오동의 숨은 소리여

IV. 연구내용

1. 가족관계를 통해 본 존재론적 노년의 위치

박완서 소설에는 다양한 가족 관계가 등장한다. 부부관계, 고부관계, 구부(舊婦)관계¹⁾,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족이라는 구성원으로 묶일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축들이 작품 안에서 형성된다.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존재를 규정받는다. 사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의 축소판인 가족 관계는 따라서 사회의 제반 삶의 양태들을 그 내부에서 투영해 내며, 이렇듯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세밀한 그물망은 사회 전체로 확대된다.

「황혼」에서는 신식 교육을 받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관계를 다루고 있다. 1960년대 이래 한국사회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변동이 진행되었다.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감소한 반면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가족이 일상생활의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현대 가정의 기능은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노인들의 위치마저 바꿔놓는다.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한과 지위를 누리며 자식들의 부양을 받던 노인들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황혼」의 주인공은 가정에서 ‘노인네’로 전락하여 무료한 일상을 영위하게 된다.

1) 구부(舊婦)관계 :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선생님 제병은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병은 아녜요. 유전일 거예요. 유전은 고치기 힘들죠? 시어머님이 저처럼 이렇게 가슴앓이로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시절론 좋다는 건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고부간에 무슨 유전입니까?” - 「황혼」245쪽.

아들 부부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지만 뚜렷한 병증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의 단절감만을 확인하게 된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가슴앓이로부터 진행된 소외는 여러 방향으로 축수를 뻗치며 확대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런가 하면 「저물녘의 황홀」은 혼자 남겨진 노년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기록이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다. 대문에서 현관문까지의 예닐곱 발짝 거리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현관문을 열 생각을 하면 무서웠다. 집 안으로 발을 들어놓자마자 백 년 묵은 먼지가 피어오르듯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냄새 때문이었다. 뻗속까지 시리게 음습한 그 곰팡내는 책이나 벽지가 썩는 듯도 했고 묵은 쌀이나 마른 반찬이 변질하는 듯도 했다. 그러나 양지바르고 구석구석 정돈이 잘 된 집안을 몽땅 한바탕 뒤엎어도 그런 것들을 찾아 낼 순 없었다(……). 문득 그 냄새가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냄새였다. 내가 떨구고 간 나의 체취가 빈 집에 피어서 온종일 썩어가는 음습한 냄새였다. 젊음에 의해 희석되거나 중화될 길이 막힌 채 피어 썩어가는 늙은이의 냄새는 말을 때마다 새롭게 섬뜩하고 고약했다. 어쩌면 안방에서 나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들고부터 그 냄새는 고약할 뿐만이 아니라 무서웠다.

「저물녘의 황홀」278쪽.

다른 세대와 함께 어울려 사는 집이었다면 희석되거나 중화되었을 노인의 체취, 즉 주인공 화자의 몸에서 나는 체취에 대한 성찰은 박완서 소설의 백미이기도 하다. 이 체취는 그 뿌리가 죽음과도 맞닿아 있을 정도로 섬뜩하고 고약하다. 극도의 외로움과 상실이 독거노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홀로 남겨진 노인은 자신의 존재감마저 찾지 못하는 깊은 소외감에 빠져들게 된다.

2. 산업사회와 노인 소외

가족문제에 대한 박완서의 역점은 근대화로 인한 대가족 해체와 핵가족 형성이라는 변화에 맞춰져 있다.

한국의 가족도 서구의 가족처럼 산업화·도시화를 겪으면서 부모, 형제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가족은 많은 경우 핵가족과 확대가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장남의 분가가 늘고 노부부 가족이 증가하고 있긴 하나, 노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거나 노부모 가운데 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경우는 장남(혹은 형편이 닿는 자녀)이 모시게 됨으로써, 가족 주기 상 언젠가는 확대가족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숨가쁘게 달려온 근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

된 이후로 풍요와 편리를 좇아 미친 듯 질주해온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왜곡되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완서 소설을 통해서 보면 부양하고자 하는 자식이 있어서 함께 산다고 해서 소외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가족 형태에 따라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상존하는 가운데 가족 형태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할 뿐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가치관의 변화나 산업화에 따른 수많은 양상들을 말한다. 이를테면 그런대로 남들로부터는 호도 하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는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도 속이 편한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유교사상이 지배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집안에서 누리던 절대적인 권한과 지위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의 부양을 받으며 살아가는 「황혼」의 주인공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확대가족 내에서의 소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늙은 여자는 웃으면서 일어나 거울을 본다. 거울 속의 여자는 울고 있었다. 영영 울고 있었다.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거울속의 여자쯤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으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늙은 여자는 과부되고 외아들 기르면서 늙어서 혼자 살게 될까 봐 항상 그걸 두려워하며 살았었다. 지금 늙은 여자는 혼자 살지 않는다. 그러나 늙은 여자는 지금 정말 불쌍한 건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임을 깨닫는다.
- 「황혼」 43쪽.

권위나 지혜의 상징에서 이제 ‘노인네’로 전락한 무료한 주인공 노인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박완서 소설에 등장하는 노인들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공간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선택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급격한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데 그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산업화는 소외가 발생하는 지점이기에 해결 방법 역시 기존의 효 사상에서 벗어난 산업화 방식을 따라 사회복지 제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족은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지속적인 사랑과 친밀성’과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된다. 하지만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가족은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되어 권력이 남용되기도 하고, 정서적·경제적 보살핌의 책임과 의무가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가정은 강한 결집력을 지닌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개개인의 엇갈린 욕망이나 이해가 보이지 않게 충돌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최길연, 2008).

3. 사회적 상황에서의 소외

노인들의 질병에 대해 다룬 여러 문학작품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주된 공통점이 드러난다. 질병이 드리운 고통이나 두려움, 육체적·심리적인 위축과 상실감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이나 희생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특히 ‘정신을 놓아버린’ 치매 증상은 암울함을 더해 주는 장치로 부각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질병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치유 방식 또한 그러한 시선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노인 당사자들이 겪는 두려움이나 공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박완서 소설 속에도 이는 잘 드러나 있다.

「환각의 나비」에서는 치매에 걸려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가족 내의 스트레스와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된다.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 갔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나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네서 딸네로, 딸네서 아들네로 보따리처럼 옮겨 다니느니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아들네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다.

- 「환각의 나비」235~236쪽.

노인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짐짝과도 같은 신세가 되어 자신의 삶이 지닌 고유성과 존엄성을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한다.

V. 작품으로 살펴본 사회복지적 접근 방법

1. 관계의 개선과 긍정의 양상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젊은 시절 소원하기만 했던 부부가 노년이 되어 애뜻한 정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딸도 난봉꾼이요 집에서는 무뚝뚝하기 그지없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컵물을 들이마시는 것도 같고 딸꾹질을 참는 것 같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서, 나는 어머니에게는 무선전화기를 갖다드리고, 계속해서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전화 바꿨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도 뜻밖인 지 약간 어눌하고 떨리는 소리였다(……). 그리고도 한참 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그 흐느끼는 음성을 통해 여지껏 들리던 그 이상한 잡음도 복받치는 울음 을 참는 소리란 걸 알아차렸다. -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 134~135쪽.

칠십에 처음 들은 사랑의 고백 때문에 나머지 생을 즐겁게 보내고 가신 어머니와 매일같이 문병을

하고 똥도 치우고 싶어했던 아버지는 장례 때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픔을 드러낸다.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나’는 어느 날 지하 분수 광장에서 노래를 하고 슬쩍 옆에 앉은 노파의 허리까지 감싸안은 아버지를 멎었고 풍류스럽다고 느끼며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과 긍정을 위한 방안으로써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측면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자기 수용과 삶의 지배력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보편적 인간애로의 확대

「환각의 나비」는 비구니가 된 처녀 점쟁이 마금이와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헉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천개사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부끼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연등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도란거리면서 더덕뽕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칠십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 낀 천진덩어리일 수가 있다니. - 「환각의 나비」 257~258쪽.

혈연이나 지연, 혹은 사회적 억압 기제로 작용하는 ‘효’ 사상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 그것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점에서 박완서 소설들은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 사회복지의 기본적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병들고 지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가정과 노인들에게 과도하게 지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지점에 새로운 노년의 삶을 위치시키는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노년과 존재의 완성

「오동의 숨은 소리여」는 김 노인을 통해 인간의 노후와 관계없이 생명이 남아 있는 한, 노인도 삶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 노인의 초라한 삭정이인 몸이나마 남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소년 같은 감각이 살아 있음’을 깨닫게 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한다. 이미 말라 버린 몸뚱이지만 긍정적인 ‘성’의 인식으로부터 정체성의 탐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생명적 활력을 찾고 ‘설렘’을 통해서 잃어버린 ‘순수’를 회상하게 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기호가 되는 것이다.

그의 노구(老軀)에 그런 싱그러운 울림이 숨어 있었다는게 놀랍고 신기했다. 그것 또한 아줌

마에 대한 친근한 연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소년처럼 여린 마음으로 소녀의 따뜻한 입김과 부드러운 손길의 감각을 반복해서 즐겼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상상한 적은 없었다. 그 자체가 이미 넉넉한 행복감이었으므로.

- 「오동의 숨은 소리여」 278~279쪽.

김 노인을 통해 노년의 삶도 생명이 지속되는 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아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육체가 늙었다고 해서 인간의 정신까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것은 생에 대한 또 다른 발견이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무한한 열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의 노후와 관계없이 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 똑같이 삶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김 노인을 통해서도 실감나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인간 육체의 쇠락은 곧 정신의 쇠락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김 노인은 아들내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모욕감을 느꼈지만 결국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슴이 벅차오게 된다. 이는 김 노인을 통해 노년의 삶도 건강한 생명력을 바탕으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울러 노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산적이고, 독립적이며, 융통성 있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V.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노인소외’ 양상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해체가 가져온 유교적 가족규범의 약화현상,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생활환경의 변화, 고도의 산업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인 노동력의 무용화, 이로 인한 사회적 역할과 경제력의 상실 등이 늙음보다 젊음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여 노인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된 노인의 지위가 소외 양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혜로운 대상에서 불편한 대상으로의 전락은 산업화라는 거센 물결에 실려온 그늘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인간의 생물학적인 노화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풀려 놓은 것이다. 박완서 소설에서 노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쇠약과 더불어 부풀려진 부정적인 모습들이 긍정의 형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완서 작품에 등장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소외 양상을 살펴보고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등장인물들은 끊임없이 가족관계의 복원과 화해의 시도를 한다. 이는 소외의 그늘에 가려 사그라지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든 소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가족의 건강, 행복, 복된 노후를 위한 가족 중심의 복원된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몸짓이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소외의 여러 양상들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지만 주인공들은 새로운 자각을 통해 존재의 성찰을 이끌어 낸다.

둘째, 박완서는 ‘고려장 이야기는 곧 그 시대의 늙은이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 같은 거였다’는 말로 폐기처분된 경로효친 사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물론 가족 내의 문제, 혹은 사회적인 책무, 또는 노인 개개인의 노력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측면도 있다.

셋째, 노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씌여진 역사를 정리하는 시간에 가깝다. 노년기는 지나온 시간들이 축적된 인생의 총체성을 획득하는 시기인 것이다. 굳이 수확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단순하게 소모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화시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으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재화의 노력을 통해 노인의 삶은 총체적인 의미망 속에 놓여질 수 있음을 박완서 소설의 주인공들은 보여준다.

2. 사회적 함의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활동으로 인도주의, 상부상조, 평등주의,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개인보다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와 사회가 노인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통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구조나 제도 개선 또는 개인의 병리적 문제해결 중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인과 사회 환경에 동시에 개입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세 가지 소외 양상에 대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측면에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자기 수용과 삶의 지배력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노인이 가족 내에서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과 함께 ‘가족부양’을 ‘사회적 부양’으로 대치하도록 정책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은 스스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즉 생산적이고, 독립적이며, 융통성 있고,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언

문학에 있어서의 노년(Aging)-나이는 문학연구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본 바 없는 분야이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의 진행으로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도시화, 집중화, 핵가족화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노인들은 그 명망과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의 위상 변화와 함께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는 노인과 관련한 사회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때임을 말해주는 지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년소설의 세부요건으로는 이러한 연령선에 있는 노년의 인물이 주요인물로 나타나야 할 것,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와 갈등이 서사몰입을 이루고 있을 것,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와 의식의 고유한 국면에 대한 천착이 있어야 할 것 등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란, 문제적 상황의 위기를 예감하여 이에 재빨리 반응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일제시대 농민, 노동자소설이나 지식인소설의 발생요건이 바로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위협하는, 식민지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였고 이에 대한 작가들의 재빠른 감응이었듯이 말이다. 게다가 소설은 작가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유일한 문학 장르다. 노인문제는 사회전반, 특히 경제분야에서 놀라운 팽창과 ‘진보’를 성취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치부와 맹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의 문학적 형상화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학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노인 문제 역시 노년소설을 통해 많은 문제제기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소외는 가장 광범위하게 드러나는 항목이다. 게다가 아주 복잡적이어서 노인소외 문제를 파헤쳐 보면 산업화의 구조적인 문제에까지 그 뿌리가 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세대를 통째로 망각해버리는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의도적 매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사회복지일 것이다. 복지제도는 인간이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있도록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냉혹한 자본주의라는 제도에 인간적인 면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 제도는 결코 의미 없는 지출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살펴본 소외의 여러 가지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참고문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 박완서(1999). 단편소설전집 1 『어떤 나들이』. 서울:문학동네.
_____(1999). 단편소설전집 2 『조그만 체험기』. 서울:문학동네.
_____(1999). 단편소설전집 3 『아저씨의 훈장』. 서울:문학동네.
_____(1999). 단편소설전집 4 『해산바가지』. 서울:문학동네.
_____(1999). 단편소설전집 5 『가는비 이슬비』. 서울:문학동네.
_____(1995). 이상문학상 수상작가 대표작품선6 『침묵과 실어』. 서울:문학사상사.
_____(2006). 『환각의 나비』. 서울:푸르메.
_____(2007). 『저문 날의 삽화』. 서울:문학과 지성사.
김상균 외(2005). 『사회복지개론』. 서울:나남출판.

권영민(1991). 『한국현대작가연구』. 서울:문학사상사.

김익균 외(2006). 『사회복지실천론』. 서울:교문사.

김영구 외(2003). 『문학의 이해』.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용직 외(1988). 『문학의 이해』.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김혜경 외(2006). 『가족복지론』. 경기:공동체.

모선희 외(2006). 『현대 노인복지론』. 서울:학지사.

문학을 생각하는 모임(1996). 『한국문학에 나타난 노인의식』. 서울:백남문화사.

박혜란(2001). 『나이듦에 대하여』. 서울:웅진닷컴.

백낙청(1979). 『문학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학적 연구』. 서울:세계의문학.

양옥경 외(2006). 『사회복지실천론』. 서울:나남출판.

서정자(2001). 『한국 여성소설과 비평』. 서울:푸른사상사.

이경호·권명아(2000). 『박완서 문학 길찾기』. 서울:세계사.

이윤로(2006). 『최신 사회복지실천론』. 서울:학지사.

이선영 외(1993). 『문학비평론』. 서울: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이인정·최해경(2006).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나남출판.

임춘식 외(2007). 『노인복지학 개론』. 경기:학현사.

조정문(2001). 『가족사회학』. 서울:아카넷.

최성재·장인협(200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한균자 외(2004).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논문 및 기타

간호옥(2001). “현대소설에 나타난 노인부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 사회과학논총 제11집.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강인숙(1993). “박완서론”.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처 연구.

강용모(2003). “채봉감별곡에 나타난 근대성과 리얼리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성아(2006). “한국 전후소설에 나타난 소외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옥(2006). “조선시대 노인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병덕(2002). “한국 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성희(2008). “한국 노인상(老人象)에 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수(2002). “루카치의 문학이론 연구”. 사회과학원.

도광조(1999). “농촌노인들의 소외의식과 사회복지적 접근모색”. 안동대학교사회개발연구

민병인(2000). “이문구 소설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거용(1987). “마르크스주의와 문학이론들”. 상명대학교논문집.

백지은(2005).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 비교문화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손덕순(2004). “노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경선(2005). “노인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사회적 지지, 고독감 및 사회관계망의 관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영준(2008). “정채봉 문학의 리얼리즘 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II. 외국 문헌

Adrienne S. Chambon and Allan Irving(1999). *Reading Foucault for Social Wor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Erikson. E.H.(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Y: Norton.

Lukacs. Georgs. *Die Theorie des Romans*. 『소설의 이론』(반성환 옮김). 심설당. 1985.

M.H.Abrams(1953). “The Mirror and the Lamp: romantic theory and the critical tradition”. Ackerman. N. (1996). Family therapy. In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 Vol.III*. ed. S. Arieti. New York: Basic Book.

문학작품속에 나타난 노인소외 양상(樣相)에 관한 연구 - 박완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

박 충 선(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은 역할상실과 존재감 혼란으로 인하여 극도의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노년기에는 기본적인 물질적인 생존욕구가 충족된다 할지라도 가족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한 소외감은 노인으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삶의 역동성을 잃어 버리게 만든다. 그리하여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노인의 소외감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감으로써 급기야는 자살의 충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적극적인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소외감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박완서의 소설에 나타난 노인 소외 양상을 사회복지적 접근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픽션인 소설 속에서의 노인의 소외양상이 결코 픽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 더 나아가서는 현실보다 더욱 적나라한 솔직함으로 구성되어 더욱 충격적일 수도 있다. 또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되는 노인의 소외감은 노인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문학작품을 통하여 노인상, 노인의식, 노인의 존재감을 탐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문학사회학 및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론적 배경에서 “소외”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개념들을 소개하면서, 노인소외는 ‘사회적, 개인적, 가족적 기대감과 보상간의 괴리에서 오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에는 급속한 근대화, 도시화, 개인주의 팽배감, 가족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핵심요인은 경제력을 상실하고 의존적이 되는 노년기에 친밀감이나 관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상의 부재라는 점이다. 또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노인문제를 제기하고, 노인소외를 중심으로 가족적 단절, 사회적 무관심, 제도의 부재 등 노인복지적 관점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주제의 창의적 접근이나 논문의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먼저, 분석대상은 박완서의 소설들이다. 연구자는 박완서라는 작가의 배경과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노인의 모습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하였으나, 작가와 소설속의 노인상과의

연계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시도되지 않았다. 물론 연구자의 주제가 소설에 나타난 노인의 소외감에 집중한 이유도 있겠지만, 작가가 문학에 입문하게 된 배경이나 자각의 시각을 언급함으로써 논문의 핵심이 노인소외감에서 작가 박완서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시도도 엿보인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의 핵심은 작가의 현실적 상황과 작품속의 노인의 소외감과의 연결관계인지, 아니면 단순히 한 작가가 쓴 작품들 속에서의 노인의 소외감에 대한 분석인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 2) 노인의 소외감을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논문의 상당부분은 노인의 소외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의 소외감에 대한 현실적 상황은 충분히 분석되었으나 이러한 소외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복지실천적 측면은 간과된 듯한 느낌이다. 노인의 소외감은 이미 소설이나 현실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소외감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 3) 마지막으로, 소설 속에 나타난 ‘노인의 소외감’을 다루는데 있어서 ‘왜 박완서의 작품들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것 같다. 물론 작가 박완서에 대한 배경설명을 첨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작가가 노인 문제를 많이 다루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을 뿐, 연구대상으로써 다른 작가가 아닌 박완서의 작품을 다룬 이유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몇 가지 제언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노인의 소외감이 대중매체(소설) 속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에서의 노인의 소외감 문제에 보다 주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